

보 도 해 명 자 료

(13. 9. 25)

수신 : 등록기자

제목 : “투자대가로 외국기업서 공무원 유학비용
받아” 보도에 대한 입장

(연합뉴스, 파이낸셜뉴스 등, '13.9.25)

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는 호주 자원개발 투자(GLNG 프로젝트) 대가로 해외기업에게 소속공무원의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13.3억원을 수수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상기 장학프로그램은 한-호주간 자원협력과 인력양성 차원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GLNG 도입계약과 관련없음

① 대가성 없는 한-호주간 자원협력 차원의 장학프로그램

- 호주는 세계 최대 자원부국으로 거의 전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큼
- 이에 따라 양국간 에너지·자원분야의 교류확대와 협력강화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여 동 장학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임
- 상기 장학프로그램이 최초 논의된 시점은 '10.12.17일부터로, GLNG 도입계약 승인(10.12.3일)이 이루어진 이후인 바, GLNG 관련 계약과 어떠한 연계나 영향도 없었음
- 오히려 GLNG 도입계약은 1여년이 넘는 협상기간 동안 우리측이 유리한 사업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,
-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 중 가격, 계약유연성 등에서 우수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임

- 1 -

② 장학프로그램 협약서상으로도 GLNG 계약과 무관

- GLNG 계약상 동 장학프로그램과 연계된 어떠한 계약조건도 없으며, 장학프로그램 협약서상에도 이와 같은 연관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오히려 장학프로그램 협약서에서는 '협약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'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타 사안과의 연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음
- 만일 GLNG 계약체결을 대가로 유학자금을 제공한 경우, 해당 기업은 호주 국내법에 의한 형사처벌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됨
- * GLNG 운영시작은 '11.5월 호주언론에 동 장학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적극 홍보함

③ 해외 에너지기업도 국제 장학프로그램을 통상 운영 중

- 해외 유수 에너지기업들도 각 국가의 협력강화와 인력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
- * Total, Chevron, BP 등은 "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"을 통해 자원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에너지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
- 우리나라도 민간차원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타 국가 학생과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 주요 대학에서 석·박사 이수를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
- * (예) 서울대 주관 '국제에너지인력벨트사업', 포스코 '아시아 펠로 한국 유학 장학프로그램' 등

④ 감사원 지적사항은 대가성이 아니라 운영절차상의 개선 필요성임

- 감사원에서도 상기 장학프로그램이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, 교육대상인원 조정 등을 안행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운영절차 개선을 지적한 것임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용환 과장 (02-2110-4894)
윤재민 사무관 (02-2110-5469)